

「我祖舊居後裔尋 蒼松石壁白雲深 遺風不盡百年久 父老衣冠古今亦」  
 「癸酉月城李裕元題 白沙先生弼雲臺」  
 (李謙魯氏藏)

## 居昌郡 農山里 및 上川里的 石造佛像

鄭 永 鎬

一九六二年 八月에 慶南 居昌郡內를 踏查했을 때 北上面 農山里와 渭川面 上川里에서 石佛 二軀를 調査한 바 있기에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

### 一、北上面 農山里的 石佛立像

農山里部에서 작은 河川을 건너 俗稱「절골」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들어가면 林野가 있고 그속에 立佛 一軀가 現存하는데 여기에 關한 記錄은 보이지 않고 아직 調査되어 있지 않으나 이곳은 洞里에서 約一·五km 되는 近距離이어서 信徒들의 來往이 많다고 한다. 臺座와 光背가 具存되었으며 全高 3m의 巨像이나 周圍에 松林이 많이 우거진 까닭에 곧 찾기가 어렵다. 平平한 地臺에 南向한 立佛은 說法通印形의 如來像인데 光背面으로부터 三四cm의 厚刻이어서 거의 圓刻에 가깝다. 素髮의 頭頂에



는 큼직한 肉髻가 있고 兩耳는 길게 늘어졌으며 三道가 있다. 相好는 眉眼에若干의 傷痕이 있고 鼻下部가 磨損되었으나 口唇에 微笑가 어리고 양볼이 豊麗하여 圓滿스럽고 慈悲가 흐른다. 양쪽

어깨와 가슴은 堂堂하고 雄健하며 通肩한 法衣는 胸前에서 圓弧를 그려고 兩膝에서는 同心橢圓形을 나타내었다. 양팔에 걸친 衣文은 길게 垂下되었으며 兩脚下部는 露出된 발 위까지 내려졌는데 左右로 펼쳐진 衣端의 彫刻手法이 注目되었다. 兩手는 共히 外掌하였고 五指가 若干씩 缺損되었다. 光背는 圓形舉身光으로서 頂上部와 右側의 肩上이 破損되었을 뿐 完全하며 周緣에는 火焰의 痕跡이 있다. 全面에 青苔가 甚하여 다른 彫飾은 分明치 않다. 두께 二〇cm의 光背와 立像이 一石으로 臺座에 套는 形式으로 되어 있는 手法은 他例에서도 볼 수 있는 바로 注目되었다. 臺座는 自然岩盤을 利用한 듯 하며 彫飾이 없는데 上面은 徑一m의 半圓으로 곱게 다듬고 양쪽발을 陽刻하였다. 石佛앞에는 一邊長 八〇cm의 拜禮石이 놓였는데 이것 또한 自然石을 上面만 平磨한 것이다. 立像各部의 均衡잡힌 몸매와 流麗한 衣紋이나 雄麗한 彫刻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統一新羅中期以後의 優作으로 推定되었다. 實測值는: 像 高 二六二cm 肩幅七〇cm 胸幅四〇cm 光背高約二八〇cm 廣幅 一五〇cm 下幅一〇〇cm이다.

### 二、渭川面 上川里的 石佛坐像

渭川國民學校에서 約二km 되는 上川里部落의 畚中에 現存하는바 洞民들 말에 依하면 이一帶가 江南寺址라고 하며 그런故로 佛像도 世稱 江南佛이라고 불리운다는 데 이에 關해서는 記錄이 보이지 않는다. 現在는 下部가 埋沒되어 있어 全身을 알 수 없는 것이 遺憾이다. 光背는 厚十四cm의 板石으로서 圓形舉身光인데 無紋이며 여기에 厚四cm로 坐佛을 陽刻하였다. 膝部以下가 埋沒되어 手印이나 彫刻을 알 수 없다. 素髮의 頭頂에는 肉髻가 큼직하며 목에는 三道가 있다. 相好는 磨損이 甚하다. 法衣는 通肩하였는데 내려진 衣紋도 磨滅이 많이 되어 流麗하지 못하다. 年代는 各部의 形式化된 手法이나 光背와 佛像의 均整치 못한點으로 보아 麗代로 推定되었다. 實測值는: 坐像 現高 約一三〇cm 頭高 五七cm 肩幅 六五

cm 胸幅 四〇cm 光背 現高約 二二·五cm 廣幅 一三·六cm

끝으로 本調査에 있어 많은 聲援을 주신 居昌郡 教育課의 白晟基氏께  
깊은 感謝를 드린다.

# 金在仁白磁墓誌

鄭 良 謨

日前에 劉義澤氏의 好意로 金公의 墓誌를 볼 수 있게 되어 여기에 紹介한다.

間或 古老의 말에 「사발지석」이 第一이라고 들었지만 이 金公의 墓誌는 우리가 흔히 보는 큼직한 사발은 아니다. 아담한 「보시기」로 若干外反된 口緣에서 비스듬히 돌출게 굽으로 끝맺은 曲線이 부드럽기만 하다.

보시기의 바닥을 除外한 內面에 둘러가면서 三段 十六行으로 된 靑華銘文이 있는 바 다음과 같다.

「僉樞義城金公之墓辛坐公諱在仁字承天生丁亥卒癸卯二月十一日配貞夫南陽洪氏墓在順興愚叟谷村後子坐」라 있어 主人 金公과 그에 對한 簡略한 紹介가 있을 뿐으로 그 상세한 것을 審定키 어려워 于先 文獻을 廣求 審定치 못하고 대략 그年代를 推定해 보려고 한다.

金公은 義城金氏로 ① 監司 聲久之 後요 그의 高祖 汝鍵은 修撰을 지낸 바 있는 肅宗朝의 靑白吏였다. 汝鍵의 生年이 一六六〇이요 卒年이 一六七七임으로 墓誌의 主人公과의 四代의 世代差를 酌量해서 主人 金公의 生年 丁亥는 一七六七로 卒年 癸卯는 一八四三으로 推定하였다.

全面에는 失透性灰白釉가 의위 있고 모래 굽으로 된 굽에는 釉藥이 벗겨져 赤褐色의 素地를 들어내고 있으며 靑華의 發色은 좀 짙은 곳은 紫色을 들어내었고 전체적으로 比較的 얇고 그릇의 內面 바닥과 굽의 中心部에서 구워진 듯하며 굽은 比較的 얇고 그릇의 內面 바닥과 굽의 中心部가 물레자족의 中心部를 最頂點으로 若干 솟아 있다.

高六·二cm、口徑一一·七cm 底徑六七cm

끝으로 墓誌銘에 對하여 于先 한 가지 問題를 남겨 後顧로 미루겠다.

金公이 僉知中樞府使로 그 婦人이 貞夫人으로 되어 있는 點이다. 그런데 ③ 僉樞는 正三品이고 ④ 貞夫人은 文武官 正從二品の 妻를 이룸이니 或 行僉知中樞府使라고도 受職하는 例가 있어 여기에 「行」字를 省略한 것이라면 모르되不然이면 여기에 若干의 問題點이 없지 않은가 한다.

### 註

- ① 萬姓大同譜 義城金氏條
- ② 嶺南人物考
- ③ 大典會通 卷之四兵典 正一品衙門中樞府使
- ④ 大典會通 卷之一吏典 外命婦文武官妻

